

■ 상록탑

‘내가 뭐라고’ 병을 아시나요?



이주연 사진부장

‘내가 뭐라고’ 병에 걸린 적 있다. ‘내가 뭐라고’ 병은 ‘내가 뭐라고’ 이런 도전을 하나, ‘내가 뭐라고’ 이 호사를 누리나, ‘내가 뭐라고’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믿나 등등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악독한 병이다. 이 병에 익숙하고 환절기 감기처럼 자주 겪는 사람으로서 이 병으로 끔찍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벼운 비타민 같은 글을 남겨보고자 한다.

티켓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대개 티켓팅 실력은 동체 시력과 반응속도, 인내심으로 구성된다. 나는 앞의 둘 다 그다지 좋지 않은데 공연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긴장되고, 긴장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떨어진다. 티켓팅에 실패하면 이전 인내심이 발동할 때다. 자리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버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병에 걸리면, 반대로 ‘내가 뭐라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하는 회의감이 시달리게 된다.

‘내가 뭐라고’ 병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온다. 앞선 티켓팅의 예시에서는 자신의 동체 시력과 반응속도,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운이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압표상이 많이 붙어서일 수도 있는데 자꾸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짚게 된다. 물론 자기 성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도가 넘으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다.

특히 지독한 점은 도전할 때마다 재발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동아리에 지원서를 넣을 때 가지게 된 ‘내가 뭐라고’ 병이 이후 회사에 지원서를 넣을 때 다시 발병하기도 한다. 실패의 경험을 비로 삼아 성장한 병은 나중엔 단순한 가지치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요일 대로 꼬인 매듭을 남긴다.

흔히 알려진 치료제는 사회적 인정을 동반하는 큰 성공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족을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이 꼭 치료를 장담하지도 않

을뿐더러, 한 번 성공 후 재발하면 더 높은 성공을 통해서만 치료하려 하니 몸과 마음이 다친다.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도 자라난 자신에 대한 의심은 뿌리 뽑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픈 치료제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작은 성공 매일 하겠다. 큰 성공으로 치료가 안 된다더니 또 성공이냐? 앞의 성공과 달리 이 작은 성공들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크 리스트의 체크 표시나 문제집의 동그라미 같은 작은 확인 표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나는 다음날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그 전날에 미리 정리해서 적어두고 당일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이 과정은 실패 확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체크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는 분기별 도전과제 만들겠다. 1년을 크게 4개의 분기로 나눠서 게임의 퀘스트처럼 도전과제를 만들고 그에 매력적인 보상을 거는 것이다. 나는 작년 휴학을 하면서 1학기 인턴, 여름 계절학기, 2학기 유튜브, 겨울 계절학기의 도전과제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중간 보상으로 산 카메라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세 번째는 적당히 세상 맞히겠다. 생각보다 많은 일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티켓팅을 하다가 서버가 터졌는데, 자신의 고물 컴퓨터와 그걸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지갑 사정을 탓하진 않을 것이다. 구멍가게만한 서버를 열고 장사한 회사 탓을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압표상을 잡지 않고 방치한 이들의 잘못을 물을 것이다. 동아리에서 회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그저 유능한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다.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의 전차 매듭에 그것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매듭을 풀지 못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나 매듭을 푸는 대신 칼로 자르고 그 예언을 이루지만, 곧 제국이 분열되고 만다. 물론 잘라내는 것은 통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듭을 잘라버리면 우리는 그 매듭이 어떻게 묶여있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도 없고, 직접 풀어볼 기회도 잃게 된다.

위의 세 방법은 모두 단숨에 매듭을 자르기로 보다는 시간을 들여가며 푸는 것이다. ‘내가 뭐라고’ 병이 남긴 두려움이라는 매듭을 직접 보고 만지며 살펴보자. 꼬인 부분을 찾고 자신의 손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지배자가 된다. 작은 성공과 행복을 통해 ‘그까짓게 뭐’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금주의 책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림

박순준 지음 / 문보재 / 2021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회화 90여 점을 큰 사이즈 도판과 함께 소개하는 이 책은 마치 미술관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듯 보고 읽을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백성 앞에서 효를 행하는 왕실 행렬을 그린 <화성능행도>나 나라의 근분이 되는 왕세자를 교육하는 모습을 담은 <왕세자입학도첩>은 그림을 통해 백성들을 계도하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함양, 경계하려고 했던 궁중회화

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문인화가로서 강세황과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나 프리다 칼로 같은 서양의 유명 화가들은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자주 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강한 자의식과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화상 그리기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흔이라는 나이에 자화상을 그린 강세황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가인 윤두서의 <쥬신삼기>나 <춘경답우도>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꾀하고자 한 진취적인 선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자세히 보고 읽어내야 우리 그림의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추천의 글을 마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준-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을 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759.11 박78]에

■ 사진부 칼럼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김영원 사진기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다시 유리창에 비쳐 사진 찍는 나의 옆모습을 직접 뷰파인더로 목격했다. 사진을 찍고 노래 하나가 떠올랐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1987)이다. “이제 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후렴구가 가사마다 음에 가득 채워져 여러 생각이 들었다.

벌써 4학년이 됐다. 매 학기 시간표를 만들고 수업 외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와 동아리를 끼워 넣으며 바쁘게 살았다. 스스로 만든 마감 기한에 휩쓸리기도 하고 숨 쉴 틈을 찾으면서도 종강하면 쉬는 것이 어색해 방학에도, 휴학 중에도 할 일을 찾았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대학을 다니며 계속 채우려고만 하고 비우려 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지금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는 비우려 한다. 더 보태지 않고, 비우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살펴봐야겠다. 빈 곳에는 사진 찍는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지. 졸업을 앞뒀거나 한창 시간을 채우고 있는 독자들도 함께해보길 바란다.

■ 여론광장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정경은 독문-19

산책을 갔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오는 길에 전에는 보지 못한 표지판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길에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는 이 길을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선 이 길로 다니지 않은 지 꽤 됐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 표지판에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만 적혀있었다. 처음 그 표지판을 봤을 때 이상한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처럼 딸이 가정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하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았다. 우리 엄마도 나와 동생을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일을 그만두셨다.

며칠 뒤에 저 표지판을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했다. 요즘은 아빠만 출근하는 게 아닌데, 왜 ‘아빠’라고만 적혀있을까? 세 번째 그 표지판을 보았을 때는 조금 불편했다. ‘아빠

는 회사원, 엄마는 주부’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느낌이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저런 클리셰가 존재할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21세기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쓰러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양육이 여자 혼자만의 일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여성에게도 출산 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덕분에 맞벌이 가정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표지판은 왜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그 길을 지나갈 일이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 표지판을 다시 보았을 때는 조금 이상하고 불편했던 부분이 바뀌어 있었다.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가 아닌,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로 말이다. 그저 ‘아빠!’라고 적혀있는 칸에 ‘엄마!’라는 두 글자만 추가한 것일 뿐인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마 누군가 이 표지판을 보고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는 미처 하지 못한 용기를 낸 것이 아닐까? 순간 불편한 감정만 느끼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태도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때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예민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몇십 년을 이렇게 불렀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익숙함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이 표지판도 누구나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문혔을 수도 있다. 아빠만 회사에 출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불편함을 바꿀 수 있는 용기에 오늘도 세상은 바뀌었다. 비록 아주 조금일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진정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

■ Z의 시선

그대여 시를 가슴에 품자

윤정인 영문-22년졸

“나 근손실 와서 열른 헬스장 가야겠어.”

근손실. 요즘 소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참 많이 쓰이는 새로운 합성어이다. 근손실은 근육과 손실 두 명사의 합성어인데, 운동을 쉬면 근육량이 줄어드니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불안감, 초조함을 내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문학을 주전공, 부전공한 나에게도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왜 다른 손실은 없고, 근육만 강조되는 것일까? 특히, 시에 대한 신조어는 왜 없는 것일까? 시-손실이라는 합성어는 왜 젊은 이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조금 서글퍼진다. 그만큼 젊은 이들 사이에서 시(詩)의 위상이 극히 좁다는 뜻일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 이들은 시를 수능 문학 영역에서 접하지만, 그것이 다다. 생활 전반에서 시를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슴에 꼭 품은 시, 페이지가 닳도록 읽어서 외운 시,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상의 연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젊은 이들이 시에게 마음을 단아서 그런 것이다. 수능 문학 영역 공부를 하며, 시가 너무 어렵고, 재미 없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 이 현상의 연원인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장르이다. 즉, 그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시는 그대의 품으로 다가와 꼭 안길 것이라는 뜻이다. 시를 가슴에 품안는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허나, 이런 아름다운 일은 그냥 일

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시가 가슴에 다가와서 안기는 것이다.

이 즈음에서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매일 시를 두 편 씩 읽고 노트에 필사를 하는 것이다. 필사 독서법은 이미 항간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내가 이 글에서 필사 독서법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음절 하나 하나를 음미하고, 분석하고, 사유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이 필사 독서법을 꾸준히 반복을 하다보면, 시를 품에 안는 그 가슴팍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하루에 두 편씩 하면, 한 달에 무려 60편이 되고, 1년에 무려 730편이 되는 것이다. 적지 않은 분량이다. 꾸준히, 성실히 하거나 하면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시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시를 하자!